

## ■ 2023년도 창작의과정 #다원예술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창작의과정 #다원예술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요일) 13:00~17: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 2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곽영빈, 박소윤, 신정원, 허대찬, 허명진

‘창작의 과정 다원예술’ 분야는 기존의 장르 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활동은 물론, 현재 지원 사업의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 유형에 대한 창작 준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에 본 심의는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연구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의 신청 사업들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대면 예술활동을 회복하고, 대면과 비대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다양한 실험적 활동들이 포함되었으며, 최종 선발된 지원자들은 시각이나 아트 앤 테크, 공연 등에 기반하면서도 관습적인 사고방식에 쉽게 동화되지 않고, 기존의 한계를 의식적으로 돌파하려는 신선한 접근과 발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수용의 범위 자체가 상대적으로 넓지 않거나, 기존의 관습이 갖는 무게가 큰 장르에서의 새로운 시도, 동시에 지역적 안배의 차원 역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세운 기획과 연구활동 목표가 모호하고, 여러 장르를 표피적으로 뒤섞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단순 취합한 경우, 또는 기존 지원 영역에서의 시도들과 겹치는 다수의 사례들은 ‘다원예술’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남아있다는 우려를 곱씹게 했습니다.

이에 기존의 도전적 시도들을 좀 더 날카롭게 버려내거나, 탄탄한 역량과 고민에 기반한 잠재력이 돋보이는 작업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사고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험적인 계획안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지원액의 제한으로 모두를 지원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다 해도 시간을 두고 숙성,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발상과 시도들 역시 적지 않았으므로, 심기일전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더 풍성한 결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